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6. 7. 13.(월) 16시

“이중언어가 경쟁력”...청소년들 한국어·중국어로 꿈을 말하다

- 재외동포청 후원...우수 참가자에게 재외동포청장상 시상
- 본선 오른 청소년 13명, 두 언어로 꿈과 생각 발표하며 실력 겨뤘

- 한국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두 언어로 자신의 꿈과 생각을 발표하며 실력을 겨루는 「제5회 한·중 이중언어 말하기대회」가 지난 11일 서울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에서 열렸다.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이번 대회를 후원하고, 이기성 재외동포 정책국장이 참석해 우수 참가자에게 재외동포청장상을 시상했다.
 - 이번 대회는 전국동포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서울외국인주민센터와 한중포커스신문이 공동 주관했다. 예선을 통과한 초등부와 중·고등부 청소년 13명이 참가해 한국어와 중국어로 자신의 생각과 꿈을 발표하며 언어 능력과 문화적 소양을 겨뤘다.
- 이날 시상식에서는 초등부 임오(한국외국인학교 4학년), 중·고등부 이해은(영림중학교 3학년) 학생이 각각 재외동포청장상을 받았다. 두 학생은 뛰어난 한국어·중국어 구사 능력과 발표력, 창의적인 내용으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.
- 이기성 국장은 “참가 학생들의 한국어와 중국어 실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”며 “이중언어 역량은 미래 사회의 큰 경쟁력이자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소중한 자산”이라고 말했다. 이어 “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미래를 이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도 차세대동포 인재 육성을 꾸준히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김호림 전국동포총연합회장은 “재외동포청이 처음으로 청장상을 수여해 더욱 뜻깊다”며 “이 같은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이중언어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- 김정룡 심사위원장은 “올해는 참가자 모두가 원고 없이 발표할 정도로 말하기 능력이 크게 향상됐고,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보여준 발표가 많아 대회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”고 평가했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동포 청소년들이 언어와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·교류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.

붙임 : 제5회 한·중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행사 사진 3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	책임자	과 장 강모세 (032-585-3280)
		담당자	주무관 김은혜 (032-585-3287)



참고

제5회 한·중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행사 사진



내·외국인 청소년이 함께하는 제5회

한·중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

青少年共 第五届

韩 中 双 语 讲 大 赛



주민센터
Center 海外外国人居民中心



Korea China Focus 韓中焦點
韓中 포커스 新聞

